**부산총회 참가자들 귀국 후 반응**

외교통상부 보도자료 / 2011.12.20

■ 부산총회 참가자들 귀국 후 반응 들어보니...

- 역대 최고 개발원조 회의로 평가

- 한국·부산의 발전상에 자극 받아

- 향후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에 유리

1. 역대 최대 규모 세계개발원조총회로 개최된 「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」(이하 부산총회) 참석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한 후 우리 재외공관을 통해 부산총회 참석 경험담과 부산총회에 대한 평가를 전해오고 있습니다.

※ 2011.11.30~12.1간 개최된 부산총회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,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, 클린턴 미국무장관, 라니아 요르단왕비, 블레어 전 영국총리 등 VIP 다수를 포함, 160 여개국 장관급 고위인사, 70 여개 국제기구 대표, 시민사회 대표 등 약 3천명 참가

2. 부산총회에 각 국가와 국제기구 대표들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. (EU, OECD, 네덜란드, 독일, 라오스, 베트남, 사우디아라비아, 스웨덴, 에티오피아, 영국, 오스트리아, 일본, 중국, 탄자니아, 팔레스타인, 포르투갈, 폴란드 참가자 평가 종합)

[회의전반]

ㅇ 역대 개발원조회의 중 최고이며, 참가해 본 국제회의 중 가장 준비가 잘되었음.

ㅇ 3,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임에도 완벽히 진행되었으며, 준비․진행․결과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회의임

ㅇ 회의의 성공은 한국만의 고유한 추진력 덕분이며, 유엔사무총장․미국무장관 등 저명인사가 대거 참가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임

[한국정부의 노력/역할 평가]

ㅇ 한국정부가 공항 도착시 부터 의전, 숙박, 교통 등 모든 것을 완벽히 지원하였으며, 의제 및 결과물 도출에 이르기 까지 매우 세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없었음.

ㅇ 회의 조직 및 운영에 크게 만족하며,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가교역할을 높이 평가하고, 부산총회 결과이행에 있어서도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함.

[한국과 부산의 발전상]

ㅇ 한국과 부산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줌으로써 개도국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개도국들이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됨.

ㅇ 특히, 컨퍼런스시설과 교통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부산의 발전상이 눈부시며, 부산이 단기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발전하게 될 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임.

ㅇ 회의 참가 결과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.

[부대행사/이벤트 등]

ㅇ 이벤트와 부대행사도 매우 훌륭하였고, 많은 부대행사(47개)와 워크샵들이 완벽히 진행된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함.

ㅇ 자원봉사자들의 언어 구사능력과 헌신적 태도를 높이 평가함.

[회의 결과 평가]

ㅇ 부산회의에서 부산선언이 채택되고,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가하고, NGO와 신흥국(중국․인도․브라질 등)이 참여한 것을 높이 평가함.

ㅇ 부산총회는 개발원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음.

3. 이번 부산총회의 성공적 개최로 G20서울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및 운영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앞으로 큰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. 끝.

DRW00000cec487b

세계개발원조총회 준비기획단

2011.12.20(화)

[총평]

|  |  |
| --- | --- |
| 평 가 | 국가(국제기구) |
| 역대 개발원조 회의 중 최고임. | 사우디아라비아 |
| 참가해본 국제회의 중 가장 준비 잘됨.  어느 대규모 국제행사보다 조직화되고 대표단의 편의를 배려한 훌륭한 행사임. | 네덜란드 |
| 매우 성공적 회의이며, 직전 세계개발원조총회(가나 아크라 회의)와는 완전히 달랐음. | JICA, EU |
| 3,000명 이상이 참석한 대규모 회의인데도 주최 측의 세심한 준비로 조직적이고 차분하게 완벽히 진행됨 | EU 등 |
|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회의이며, 많은 성과를 도출함. | 라오스 |
| 준비, 진행,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회의라는 것이 EU 대표단의 공통된 평가임. | EU |
| 역대 최대 규모로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대단히 성공적 회의임. | 베트남 |
| 회의운영, 참석수준, 내용 및 결과문서,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성공적 회의이며, 이는 한국만의 고유한 추진력 덕분에 이룬 성과임 | OECD (사무총장) |
| 유엔사무총장, 미국무장관 등 VIP가 대거 참가한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반영함. | 에티오피아 |
| 회의 행정․조직, 주제 측면 모두에서 아주 인상적이고 만족스러움. | 오스트리아 |
| 준비가 완벽하였고, 회의 참석에 매우 만족함. | 네덜란드 |

[한국정부의 노력/역할 평가]

|  |  |
| --- | --- |
| 평 가 | 국가(국제기구) |
| 공항 도착시 부터 의전, 숙박, 교통 등 모든 것을 완벽히 지원함. | 포르투갈 |
| 한국 측의 철저한 준비와 환대 및 지원에 감사함. | OECD, 폴란드, 라오스, 탄자니아, 베트남, 라오스 등 |
| 한국 정부가 행사진행, 의전 및 대표단 지원, 의제 및 결과물 도출에 이르기까지 매우 세심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에 대해 매우 감탄함. | 사우디아라비아 |
| 한국정부의 준비는 아름답다고 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였으며, 대표단이 활동하는 데 여하한 어려움도 없었음. | 중국 |
| 한국이 매우 깔끔하게 회의를 조직,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함. | 중국 |
| 교통, 숙박, 회의 시설 및 운영, 여타 부대지원 등 모든 면에서 불편함이 없었음. | EU |
| 한국 정부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씀.  한국에 여러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인상깊게 지켜보고 있음 | JICA, EU |
| 한국이 금번 회의 개최국으로 최적지였음. | 네덜란드 |
| 수준 높은 회의 진행과 준비를 높이 평가하고 대표단에 대한 배려에 감사함. | 에티오피아 |
| 한국의 부산총회 개최와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함. | 영국 |
| 한국의 회의 조직 및 운영에 크게 만족함. | 라오스 |
| 회의전반을 매우 훌륭하게 준비하였으며, 행정사항(logistics)도 완벽하였음. | 일본 |
|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가교역할로 다양한 주체가 참가해 폭넓은 논의가 가능하였음. | 일본 |
| 부산총회 결과 이행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함. | EU |

[한국과 부산의 발전상]

|  |  |
| --- | --- |
| 평 가 | 국가(국제기구) |
| 부산총회를 계기로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참석자들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개도국들에게 스스로의 노력과 비전없이 원조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전해 줌. | 사우디아라비아 |
| 부산항이 단기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으로 발전하게 될 지 누구도 몰랐을 것이며,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러한 성공사례는 없을 것임. | 사우디아라비아 |
|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으며, 체제기간이 짧아 한국체험을 많이 할 수 없어 아쉬웠음. | 포르투갈 |
| 컨퍼런스 시설, 교통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는 부산의 발전상이 눈부심. | 베트남 |
| 한국의 개발 성공 스토리가 인상적임. | 팔레스타인 |
| 외국 원조 접수창구였던 부산에서 세계 최대 원조회의가 열린 것은 전 세계 개도국에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됨. | 에티오피아 |
|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크게 발전하는 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 가 반성하는 계기가 됨. | 에티오피아 |

[부대행사/이벤트 등]

|  |  |
| --- | --- |
| 평가 | 국가(국제기구) |
| 많은 부대행사(47개)와 워크샵들이 완벽하게 진행된데 놀라움을 금치 못함. | 사우디아라비아 |
| 회의뿐만 아니라 관련 이벤트와 부대행사도 매우 훌륭하였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음. | 포르투갈, 베트남, JICA, EU |
| 외국어를 유창히 구사하는 가이드가 안내한 시내 시찰에 매우 만족함. | 중국 |
| 자원봉사자들의 언어구사능력, 적극적이고 헌신적 태도가 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함.  ※ 지하철 승차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, 자원봉사자가 나타나서 훌륭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줌 | 베트남 |

[회의결과 평가]

|  |  |
| --- | --- |
| 평 가 | 국가(국제기구) |
| ① 부산선언이 성공적으로 채택된 것을 높이 평가함. 이는 개발원조분여에서 큰 의미를 지님  ②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함으로써 정치적 지지 기반이 강화됨.  ③ 광범위한 참여(특히, NGO 참여)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| 폴란드 |
| 중국·인도·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참여를 높이 평가함. | 독일, 스웨덴 |
| 기존의 개발원조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. | 포르투갈 |
| 회의 결과가 매우 만족스러움. | EU |
| 포괄성 측면에서 특히 성공적임. | JICA, EU |
| 신흥국과 민간부문 참여가 과거회의와 차이점이며 금번회의의 최대 성과임. | 네덜란드 |